

인명의 중요성 Importance of Human Life

※ 金 鎮 源
J. W. Kim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간혹 보게된다. 그 사례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교통규칙이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모든 차는 멈춘다. 사람이 먼저 건너간 후에야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차가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아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가 다 지나가야만 사람이 건너간다.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점들은 바로 고쳐야겠다.

사람이 먼저 건너 간후에 차가 지나가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므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역시 불감증에서 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행동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의 발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사례로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객은 관악산 정상에 오른적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연주대 사

당은 많은 불교인들이 성불하는 곳이다. 그 밑에 지반을 보면 절벽이며 수직절리(Joint)가 많이 있다. 그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외국인이 보면 어찌 생각할까. 멋있다고 보기 보다는 위험하다 생각할 것이다. 언제 절리면이 풍화에 의해서 화강암 절리의 파괴로 붕괴될는지 그 시기는 알수 없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곳에 시설물 설치를 하지 말라 할 것이다.

매번 불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한국인은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할 뿐 실천을 못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사찰을 옮기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붕괴가 전혀 향후에 일어날 수 없게 보장되어야 한다.

연주암측에 문의하여 불안함을 알리니까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그런데 연주대가 있는 곳은 문화재 지역, 군사 지역, 기상관측 지역, 불자의 지역, 관악구청의 행정구역 등, 연주대 사찰의 안전지대로 이동시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지나가고 있다 한다.

※ 지구물리, 응용지질기술사, 동일기술공사 고문, 本會이사

